



## “함박눈처럼 아름답고 포근함에 반했어요”

### 도내 유일 목화재배 강윤환 씨

“이 씨앗들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

홍천 동면 개운리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목화를 재배하고 있는 강윤환(67) 씨는 2012년 목화 씨앗 10개를 처음 심었을 때 이런 심정이었다고 한다. 고려시대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져온 문익점도 목화씨를 심었을 때 이런 절박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며 동질감을 느꼈다.

강 씨와 목화의 만남은 우연히 이뤄졌다. 서울에서 40년 동안 꽃꽂이 화원을 운영하다 7-8년 전 홍천으로 이사 온 후 자신의 소유인 2000평에서 농사를 지었으나 녹록하지 않아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하던 중 우연히 양주 목화축제장을 찾았다가 목화솜의 아름다움에 반해 꽃꽂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화는 대부분 의류산업용으로 활용했으나 꽃꽂이용 활용은 강 씨가 국내에서 처음 시도한 것이다. 목화에 대한 발상을 전환한 것이다.

꽃꽂이 전문가인 강 씨의 눈에는 백설처럼 희면서도 포근한 느낌을 주는 목화솜이 아름다운 꽃으로 보여, 2014년 서울의 한 호텔에 성탄절 날 목화솜 꽃꽂이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 것이 받아들여져 인기를 끌면서 목화솜 꽃꽂이에 대한 성장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서울 꽃 도매시장에서 목화씨를 구입했으나 재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분홍색 예쁜꽃을 피우게 하려고 화단에 심고 가꿨으나 발아가 잘 안되거나 생육이 안 좋아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은 후 2014년 재배기술을 터득했다.

목화는 꽃이 지고나면 복숭아 모양의 푸른 열매인 다래가 달린다. 이 다래가 익어 적당히 보랏빛을 띠 때 수확해 응달에서 말려야 한다. 다래 껍질이 검은빛이 되면 실금갔던 부분이 터지



◇ 강윤환 씨는 홍천군 동면에서 도내 유일하게 목화솜꽃을 재배하고 있다.

### 홍천 귀촌후 재 상경 고민하던 중 양주목화솜꽃 아름다움에 반해 도내 유일 목화 재배후 꽃꽂이 시도 홍천을 대표할 체험관 운영이 꿈

면서 목화솜이 빠져나오는데 마치 꽃과 같다.

2014년 1000여 평에 심은 목화솜 꽃이 처음 피었을 때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했다고 했다. 그러나 한 송이 목화솜 꽃을 피우기 위해선 봄부터 수확 때까지 온갖 정성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쉽지 않다고 했다.

강 씨는 고유종, 개량종, 수입 종들을 다양하게 심었다. 하지만 목화솜은 고유의 품종은 함박눈, 개량 및 수입 종은 싸락눈으로 비유할 정도

로 고유의 품종이 아름답다고 했다. 목화솜 꽃꽂이는 생화의 생명력, 조화의 인공미의 장점을 두루 갖춘 최고의 미를 느낄 수 있다고 자랑했다. 또 햇빛에도 색이 변하지 않고 10년이 가도 변하지 않을 정도로 수명도 길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올해 초 홍천강 인삼삼충축제 때 목화솜 꽃꽂이체험관을 운영해 관람객들이 신기해 하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등 호응이 높았다. 축제 후에는 군부대에서 실습요청이 들어와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최근엔 목화솜 꽃의 따스함 속에 한겨울 때서운 추위도 있고 아름다운 꽃꽂이 만들기에 빠져 있다.

지난해 2000여 평에 목화를 심어 수확한 목화솜이 서울 등으로 판매되고 있어 넉넉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강 씨는 “목화솜 꽃꽂이는 눈이 부시도록 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아름다움에 마음을 안정시키고 무궁무진한 작품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매력”이라며 “홍천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키울 수 있는 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허남영 기자

#### ◆ 홍천군노인복지관 3월 행사일정

일시	장소	내용
2018.03.08.(목) 오후 1시	홍천군노인복지관	홍천군기금지원사업 '반갑다 친구야' 개강
2018.03.12.(월) 오전10시	홍천군노인복지관	'벗과 그린 향기땀밭' 개강
2018.03.13.(화) 오후 2시	홍천종합체육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2018.03.21.(수) 오후 2시	홍천군노인복지관	남성자립강화프로그램 '요리콧소리콧' 개강



- 02 -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신년각오
- 03 - 홍천군노인복지관 NEWS
- 04 - 경로당 탐방

- 05 - 귀농·귀촌인 이야기
- 06 - 다문화가정이야기
- 07 - 우리 직장 칭찬릴레이

- 08 - 인생칼럼
- 독자기고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10개 읍·면분회장 신년각오**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는 지난 연말 이형주 회장이 취임한데 이어 올해 읍·면분회장 10명이 잇따라 선출함에 따라 2018년 대한노인회 홍천군분회 집행부 구성이 마무리됐다.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읍·면분회장 10명 가운데 홍천읍과 서면분회장은 올해 처음으로 선출됐고, 나머지 8명의 분회장들은 재 선출됐다. 10개 읍·면분회장들의 2018년 포부를 들어봤다.



**박주순 홍천읍분회장  
경로당 48곳 순회간담회 정례화 추진**

박주순(77) 홍천읍분회장은 “회원들의 화합을 위한 교육 강화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경로당 순회간담회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올해 48개 경로당회장들의 추대로 처음으로 선출됐다. 홍천청년회의소 회장, 홍천문화원 부원장을 역임한 후 홍천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부인 이순이 씨와 슬하에 2남1녀를 두고 있다. 홍천읍 회원은 2582명이다.



**원윤상 동면분회장  
소득사업과 동면노인회관 건립 추진**

원윤상(78) 동면분회장은 “화목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공동생산과 판매를 통한 소득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동면 노인회관 건립 추진을 약속했다. 원 회장은 동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홍천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동화중학교 동창회장 등을 역임했다. 부인 박순근 씨와 슬하에 2남2녀를 두고 있다. 동면회원은 912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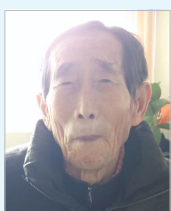
**이상섭 화촌면분회장  
컴퓨터교육과 소득증대로 사기 진작**

이상섭(78) 화촌면분회장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 최신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하천, 강 정비사업을 추진해 분회 소득증대를 통한 선진지 견학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화촌면이장협의회장, 화촌면체육회 상임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부인 오성연 씨와 슬하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화촌면 회원은 1500명이다.



**조형원 남면분회장  
홍천군에 남면분회 사무실 건립 요구**

조형원(72) 남면분회장은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인회관과 건강센터 등을 갖춘 남면분회 사무실 건립추진을 위해 홍천군에 협조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홍천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남면농협조합장 등을 역임했고, 새마을훈장 협동장을 수상했다. 부인 강순덕 씨와 슬하에 1남3녀를 두고 있다. 회원은 1300명이다.



**이승만 두촌면분회장  
건강프로그램과 고사리재배사업 확대**

이승만(88) 두촌면분회장은 “회원들의 건강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고사리재배 등 소득증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소득증대 사업으로 홍천군에 300만 원, 마을에 1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두촌면이장협의회장, 두촌농협조합장, 두촌면변영회장 등을 역임했고, 2남1녀를 두고 있다. 두촌면 회원은 784명이다.



**심우흥 북방면분회장  
독거 등 생활이 어려운 회원 지원책 강화**

심우흥(78) 북방면분회장은 “경로당회원들을 위한 교육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독거회원 등 생활이 어려운 회원들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며 “상화계리 복지회관 내 분회사무실을 소통창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심 회장은 북방면이장협의회장, 북방면체육회 상임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부인 허부전 씨와 2남2녀를 두고 있다. 북방면회원은 1100명이다.



**김종국 내촌면분회장  
각종 안전사고예방대책 마련에 최선**

김종국(79) 내촌면분회장은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교통 등 각종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회원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30년 동안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는 등 마을일에 앞장서 새마을훈장 협동장을 수상했으며, 초대 홍천군의원을 역임했다. 부인 이재분 씨와 슬하에 3남2녀를 두고 있다. 내촌면회원은 730명이다.



**신흥근 내면분회장  
걷기운동 장려와 교통안전교육 강화**

신흥근(76) 내면분회장은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 걷기운동을 장려하고, 농촌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경로당별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혼자 살고 있는 회원 돌보기 운동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회장은 자운리마을이장 6년과 경로당회장 8년을 맡는 등 마을발전에 기여했고, 5남을 두고 있다. 내면회원은 790명이다.



**사영한 서석면분회장  
자식에 의존하지 않도록 일자리 확대**

사영한(78) 서석면분회장은 “회원들의 건강을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도록 회원들의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생활과 홍천군의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홍천군민대상(1기), 강원농어민 대상(2기) 등을 수상했다. 부인 용옥분 씨와 슬하에 2남2녀를 두고 있다. 서석면회원은 900명이다.



**윤석영 서면분회장  
표준식단제 건의와 윤번제 회동 추진**

윤석영(70) 서면분회장은 “경로당의 표준식단제를 보건소에 건의하고, 서면 17개 리 경로당간 친목도모와 정보 교류 차원에서 회장 및 사무장 윤번제 회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면 분회사무실을 건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회장은 40년 동안 중등학교 교사직을 역임했으며, 부인 이기혜 씨와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서면회원은 1000명이다. 박세구 기자

# 어르신 621명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홍천군노인복지관(관장 자월스님)이 주관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이 3월 13일 오후 2시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홍천군노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는 62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사업소개, 향후 일정, 대표자 선서, 1년 동안 안전하고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홍천보건소, 소방서 연계로 안전교육이 진행됐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간담회, 평가회의, 문화활동, 활동교육 등 1년 동안 체계적인 활동이 진행된다.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사회활동사업은 노노케어(말벗서비스)활동, 보육시설지원활동, 복지시설지원활동, 경륜전수활동, 도서관지원활동, 스쿨존지킴이활동, 친환경방역단, 근린시설지원활동, 교육시설지원활동 등 10개의 공익형 사업이 있다. 또 시장형 사업인 매장운영사업으로 휴카페(커피제조)와 휴쿠기(쿠기제조)가 진행된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홍천군노인복지관은 지난달 12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맞이 대축제가 열렸다.

## 공익형 10개 사업 매장운영 2개 사업 등 진행 어르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가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체 건강한 노인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9~12개월이며, 월 27만 원이 지급된다. 사회참여가 가능한 활동처(수요처)를 발굴해 참여자와 매칭이 되면 월10번(30시간) 활동한다.

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은 기초노령연금 미

수급자가 참여해 캠페인활동, 학습지도, 기타활동(체육지도활동) 등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60명이 활동한다.

홍천군은 전체인구 7만235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5967명으로 22.7%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노인인력 활용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노인들을 사회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사회참여와 역할을 부여하여 건강증진, 소득창출 등 사회적 균형을 실현하고 노인의 4고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자월 관장은 “급속히 증가되는 노인인구에 대비하여 노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쌀 후원·경로식당 자원봉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홍천군노인복지관은 재가어르신 지원과 일일 350명 이상이 이용하는 경로식당의 쌀 소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고 영양가 가득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홍천군노인복지관 이용회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쌀을 후원 받고 있습니다.

또 홍천군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홍천군노인복지관은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합니다. 홍천군노인복지관 이용회원 및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홍천군노인복지관 주말농장 운영

홍천군노인복지관이 3월부터 8월까지 주말농장(벚과 그린향 기터밭)을 운영한다. 주말농장은 1구좌(4평)에 5만 원으로 노인복지관 인근지역에 위치해 있다.

주말농장은 농장에서 직접 채소나 친환경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 한과세트 후원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지사장 이만현)는 2월 9일 홍천군 노인복지관에 재가어르신들을 위한 한과세트 10개(30만 원 상당)를 후원했다.

경로당 탐방시리즈 (45) 두촌면 자은2리

# 올해 최대목표는 노인노래자랑대회 우승



◇ 두촌면 자은2리 경로당(회장 김영환·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홍천군 두촌면 자은2리 경로당은 1996년 12월 두촌중학교 옆 증골길에 설립됐다. 자은2리 경로당은 자은1, 2, 3리 연합 경로당으로 운영되어 오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회원들이 늘어나 자은1, 2, 3리로 나뉘었다.

자은2리 경로당 초대회장을 이삼만 두촌면분회장이 15년 동안 맡아 오다가 2011년부터 김영환(84) 회장과 이남수(72) 사무장이 경로당을 이끌고 있다. 회원 46명(남자 22명, 여자 24명)이 모이는 쉼터이자 행복한 보금자리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평균 연령은 83세이다.

자은2리 경로당은 장수회원들이 많다. 김주영, 최원분, 김신옥 회원은 올해 93세지만 농촌 일손을 돕는 등 부지런함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 하루도 빠짐없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많이 움직이고, 밥 잘 먹고, 밝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건강비결이라고 했다.

두촌 자은리에 옥수수 가공공장이 있어, 옥수수 철이 되면 옥수수 껍질을 벗기는 수작업과 선별작업, 탈피작업 등을 해야 하는 일손이 필요해 경로당회원 10명이 작업장에 나가 일해 1인당 200만 원의 소득을 올려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또 3~4월에는 산에 다니며 고사리 등 각종 산나물을 채취해 삶아

말려 판매해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는 두촌면사무소에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100만 원을 기탁해 웃어른으로 솔선수범했다. 올해도 기금을 마련해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 회원 46명, 평균연령 83세 장수경로당 옥수수 가공공장서 일해 소득 올리고 산나물 채취해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게이트볼대회 우승, 각종 표창장 수상 화장실 이전과 노래방기기 교체 희망

여성회원들은 청소와 주변정리로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다. 청소는 주변을 깨끗하게 하지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자은2리 경로당은 2004년 10월 27일 노인의날에 홍천군수 우수표창장을 받았고, 회원들이 출전한 게이트볼 대회에서는 2007년 한서제, 2009년 홍천군체육회장기, 2009년 무궁화축제 등에서 우승했다. 2017년 경로당 발전 활성화와 노인의 날에 홍천군수 표창 등을 수상해 다른 경로당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다.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소속 노래강사인 한명숙 씨가 운영하는 노

래교실은 남자 10명, 여자 30명 등 4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노래교실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두 시간 동안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이 딱 좋아, 꽃을 든 남자, 시계바늘' 등 각종 노래들에

대한 열창으로 이 시간 동안에는 각종 시름을 잊는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는 모두가 청춘이다.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공간에 머물러 있다.

올해는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에서 매년 진행하는 노인연합회에 출전해 우승하겠다는 각오로 노래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또 한명숙 씨가 경로당에 올 때마다 떡, 과일, 과자 등을 가져와 어르신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소통하고 있어 칭찬이 자자하다.

김동손 이장과 설미숙 부녀회장의 대접도 극진하다고 했다. 이들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모습이 너

무 좋다"며 "항상 웃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자리 참여회원은 9명(남자 6명, 여자 3명)이다.

김영환 회장은 "올해 경로당 밖에 있는 화장실을 경로당 안으로 이전하고, 오래된 노래방 기기를 교체하고 싶다"며 "경로당회원들이 화합하고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쉼터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두촌면 자은리는 일제 때부터 금광과 철강으로 유명하고, 다른 지역은 등잔불을 켜고 있던 시절 두촌면에서 가장 먼저 호롱불을 켜고, 일제시대에는 전기가 가장 먼저 들어왔을 정도로 지역 경기가 활발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인근지역인 내촌면과 인제 남면에서까지 두촌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안태수 기자



### ◇ 경로당 임원 현황

직책	성명	연령	직업
회장	김영환	84	농업
부회장	강영석	84	농업
부회장	김상금	78	주부
감사	함현국	83	농업
사무장	이남수	72	농업

귀농·귀촌인 이야기(13) 화촌면 군업리 김봉수·안은숙 씨 부부

# 농촌서 자녀 키우는 꿈 실천 “아이들도 만족해요”

남편은 서울에서 우리나라 최대은행 본점에서 근무했고, 아내는 한의원 코디네이터 겸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젊은 부부가 있다. 이 부부는 서울에 살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안정적이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서울생활을 접고 농촌을 선택했다. 다른 사람들은 뜻밖의 선택이라고 여겼다. 귀농귀촌은 나이 지긋한 중년부부들이 선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부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놀랐다.

이 부부는 꿈이 있었다. 서울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결혼한 후 자녀를 낳으면 농촌에서 키우는 것이었다. 어느덧 두 아들이 생겼다. 큰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농촌으로 이사할 준비를 했다. 이 부부는 공기 좋고 환경 좋은 농촌을 선택하기 위해 양평, 횡성, 정선, 홍천 등을 찾아다닌 끝에 서울과 가깝고 교통이 좋고, 개울이 흐르는 등 주변 환경이 좋은 홍천군 화촌면으로 정하고,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 2015년 홍천으로 이사했다.



◇ 김봉수·안은숙 씨 부부는 서울생활을 접고 3년 전 홍천군 화촌면으로 귀촌했다.

## 텃밭재배, 이웃들과 공유 재미 도시에 없는 즐거움 만끽 두 아들, 학교와 시골생활 ‘자연의 신비로움’ 반해 밝아져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봉수(41)·안은숙(39) 씨이다.

아담한 집도 지었다. 지붕에서 마당까지 내려오는 짙라인을 설치했다. 짙라인은 두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연체험장이 됐다.

남편은 회사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내는 자동차로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태워다 주고 집안일과 텃밭을 가꾸고 있으며, 틈틈이 직장생활에서 얻은 노하우로 인터넷 일도 했었다. 주말이 되면 가족모두가 홍천지역 주변과 다른 지역을 다니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즐기고 있다. 두 아들은 아빠가 친구가 되어주는 주말을 기다렸다.

두 아들이 또래 아이들보다 공부가 뒤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들지 않는냐는 질문에 아내인 안씨는 “공부만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으려면 폭넓은 경험이 중요하다”며 “걱정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두 아들이 다니는 삼포초교는 전교생이 45명이다. 모두가 친구이며 형제처럼 지낸다고 한다. 선생님들도 자원하여 시골생활을 즐기며 사는 분들이라 기쁨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본다고 한

다. 그녀의 두 아들도 이곳에 와서 성격이 밝아지고 활동적으로 변했다고 한다.

그녀는 마당에서 뱀이 나타나 잠자리채로 잡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남편에게 사진 찍어 보내고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었고, 한번은 집안에 쥐가 들어왔는데, 쥐를 처음 봐서 당황했는데 아이들을 불러서 보라고 한 후 야생동물 한 마리로 생각하는 등 농촌생활에 적응해 갔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개미 관찰, 나비, 잠자리 채집이며 곤충들을 보고 그들의 특성과 생김새를 자세히 볼 수 있는 농촌생활은 신비함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하다고 했다.

한번은 둘째 아들이 병아리를 사와 길렀는데 어찌나 잘 자라는지 큰 닭이 되어 알도 낳았다. 아이들은 따스한 알의 체온을 느끼며 자연을 사랑하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품으로 자라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개 2마리와 고양이 2마리를 기르고 있다. 텃밭에는 감자, 옥수수, 토마토, 가지, 참외, 수박 등을 재배하고 있다. 배추, 무도 심어 김장도 하고 콩을 수확해 메주도 만들었다.

각종 씨앗을 심어 새싹이 나오는 모습과 자라는 과정들을 사진 찍어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이웃들과 키우는 기쁨을 공유한다.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사계절이 변화하는 모습을 남기며 도시에 사는 친구들에게 시골생활의 즐거움을 전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동네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잘하도록 시켰다. 지금은 동네 어른들이 멀리 있어도 달려가서 “안녕하세요?” 하며 큰 소리로 인사를 하고 있어 인사 잘하는 아이들 집이라고 동네에 소문이 났다고 한다.

남편이 없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다. 주택을 짓고 살았는데 주택에 문의한인 여자가 집을 관리하면서 겪는 고충이 컸다. 지하수 펌프가 고장이 나서 기술자를 불렀더니 수리비가 십만 원대로 나왔는데, 그 후 알아보니 너무 비싸게 지불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남편은 계속 본점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2월초 춘천지점으로 발령이 나 홍천 집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되어 온가족이 새로운 꿈과 계획으로 부풀어 있다.

김봉수·안은숙 씨 젊은 부부의 행복한 농촌생활은 도시에서 시골로 귀촌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김순화 기자

다문화가정이야기 (44) 북방면 소매곡리 맥펠리 씨

# 2017년 다문화축제로서 장한 어버이상 수상

“한국에 와서 티넬과 고가도로를 처음 봤다.”  
 캄보디아에서 시집와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에 살고 있는 맥펠리(32) 씨는 “한국엔 도로 위에 도로가 있어 놀랐다.”고 했다.  
 그는 캄보디아 캄포스페우에서 아버지 크래크 사린(57) 씨와 어머니 초엔속꿍(55) 씨의 2남2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직원 2~3명을 두고 가구를 주문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그는 가정 사정으로 중학교 2학년을 수료하고 할머니와 함께 가구판매를 도왔다.  
 평소 다른 나라가 궁금하고 가보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외국인과의 결혼을 꿈꿔왔다. 국제결혼 전문회사에서 일하는 사촌오빠의 주선으로 2007년 10월 1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남편(이석승·45)을 만났다. 남편과 한국이 좋아 결혼을 결심했다. 다음날 결혼식을 하고 서류를 준비해 2008년 1월 19일 한국에 와서 3월 15일 홍천읍 K컨벤션웨딩홀에서 다시 결혼식을 올렸다.



◇ 맥펠리(32) 씨가 4명의 자녀들과 함께 밝게 웃고 있다.

## 아들만 4명 자식투자 과감한 생활력 강한 엄마상 한 달에 한 번 지인과 고향음식 먹는 즐거움도 누려

남편은 아버지 이규남(73) 씨와 어머니 윤복순(64) 씨의 2남1녀 중 맏이다. 부모님은 6000㎡의 임차농지에 가지, 고추, 호박 등 하우스농사를 짓고 있다. 남편은 춘천직업훈련원 기계가공과를 졸업 후 안산에 있는 공장에서 소형엔진, 자전거엔진, 모형비행기 등 조립업무를 맡아 2년 동안 일했다. 그 후 신장이 나빠져 팔을 치켜들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고 있다. 시댁에는 할머니(정용례·94)가 계시지만 뇌경색으로 몸이 불편하고, 시아버지도 17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졌지만 약물치료를 받으며 농사를 짓고 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시조모, 시부모와 같이 생활했으나 7년 전부터는 아래층에서 생활하고, 부모님은 위층에서 별도로 생활하고 있다.  
 남편은 건축 일을 하다 지난 1월부터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농사를 거두고 있다.  
 처음에는 한국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시집을 때 고국에서 말린 생선을 많이 가져와 시어머니가 고추장을 넣고 무쳐주어 한 달간은 맛있게 먹었다. 한 달 후 바로 임신했는데 고향음식이 먹

고 싶었지만 인근지역에는 없었다. 남편은 그를 데리고 서울과 안산 등지를 다니며 캄보디아 음식 전문점을 찾아 고향음식을 먹도록 해줬다.  
 시집은 그해 첫아들 민현(11)을 낳았다. 딸을 기대했는데 민찬(9), 민수(8)에 이어 민용(2)까지 아들만 넷을 낳았다.  
 2010년 10월 홍천군보건소에서 주선한 복권 공익지원사업 중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의 혜택을 받고 시어머니, 남편, 첫아들과 함께 15일간 캄보디아 친정을 다녀왔다. 특히 시어머니와 친정식구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지 관광을 했다. 3개월 뒤 결혼중매로 다시 캄보디아를 다녀왔다. 매년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에버랜드를 다녀온다며 “생활은 어렵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써야한다”고 말했다.  
 2011년 4월 5일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2014년 8월 29일 세 번만에 운전면허(2종 보통)를 취득했다. 한 달 후 중고 경차를 샀다. 홍천읍 상오안리 농공단지 입주업체 태양3C에 4년 동안 근무하다 막내아들 출산으로 퇴직했다.  
 시조모, 시부모 있는 넉넉지 않은 가정에 시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며 생활력 강한 그를 보고 주변에서 캄보디아 아가씨와의 결혼신청이 늘고 있다. 친척, 친구 등 4명의 캄보디아 아가씨를 소개해 결혼을 성사시켰다. 이들은 홍천군 동면, 북방에서 잘살고 있으며, 지난해 여동생이 내면으로 시집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4일 열린 제7회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로서 장한 어버이상상을 수상했다.  
 그의 친정어머니는 지난해 한국에 와서 막내 아들 임신과 출산에 따른 뒷바라지를 했고 지금은 내면에 살고 있는 여동생의 임신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육개장을 좋아해 인근마을의 대중음식점을 찾는데 남편은 취향이 달라 볶음밥을 먹는다. 가끔 고향의 음식이 생각나면 캄보디아 전통국수인 농반쪽을 해먹지만 남편과 아이들은 향을 싫어해 혼자만 먹는다.  
 한 달에 한 번씩 캄보디아에서 홍천으로 시집온 고향의 지인들을 시내에서 만나 음식을 먹으며 고향얘기를 할 때가 가장 즐겁다고 했다.  
 그는 ‘현재 생활형편이 어려워 막내아들이 조금 더 자라면 예전과 같이 일 자리를 찾아 일을 할 예정’이라며 ‘요즘 같은 저 출산시대에 자녀가 많은 가정을 위해 국가의 많은 보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윽희 기자



우리 직장 칭찬 릴레이 (46)

홍천진달래로타리클럽

# 홍천 유일 여성클럽 엄마마음으로 봉사활동 앞장

홍천 진달래로타리클럽(회장 김영순)은 2008년 3월에 창립되어 현재 30명의 회원이 활발하게 봉사활동하고 있다. 진달래로타리클럽은 홍천지역에서 유일한 여성클럽이다. 국제로타리는 112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기본정신은 정의와 평화이며, 실천(봉사)을 통해 변화를 창출하고 있다. 남성클럽이 할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섬세함과 자상함이 클럽을 창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로타리 강령과 로타리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봉사에 임하고 있다.



김정숙 총무



정금자 사찰



민경임 사찰



김영순 회장

- 김정숙 총무 - 회장역임후 총무 맡아 각종 봉사활동 솔선수범**
- 정금자 사찰 - 창립회원으로 해외봉사까지 참여 가족도 동참**
- 민경임 사찰 - 음식 차량지원 봉사위해 식당 휴업하는 열성과**
- 김영순 회장 - 창립 10주년 기념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준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은 교육기관 장학금 선발 및 장학금 지원사업, 불우이웃을 위한 바자회행사 봉사, 홍천군장애인복지관 점심식사봉사(매주 금요일), 홍천군노인복지관 재가노인 도시락 전달봉사(매주 화요일), 지역문화축제 자원봉사 지원사업, 세계사회봉사,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봉사 등을 연차사업으로 정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홍천군보건소에 어르신 후원 물품을 기탁했다. 10월에는 수타사 산소길에서 전개된 소아마비 박멸 홍보 및 자연보호캠페인 행사에 참여했다. 11월에는 홍천군청을 방문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 100만 원 및 전기담요 10장을 기탁했다. 회원들이 사무실에 모여 칭찬 릴레이를 시작했다.

김영순 회장이 김정숙(54) 총무를 칭찬했다. 2009년 입회해서 9대(2015년) 회장을 역임한 김 총무는 식당(롯데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도 봉사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회장 역임 후에도 총무 직을 기꺼이 맡아 클럽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각종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2015년에 미얀마(양곤) 봉사활동에 동참해서 한국봉사단체에서 지어준 초등학교의 학생과 교사들에게 교복과 생필품(학용품, 선풍기 등)을 지원했는데 교사와 학생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무궁화축제 등 지역 행사 때에는 음식봉사

에도 참여했다. 그는 “전 회원들이 월 회비, 특별회비, 성금, 기부금 등을 내고, 또 바자회를 열어서 자금을 마련하는 등 외부 도움을 받지 않고 자비로 모든 봉사활동 비용을 충당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김 총무는 정금자(60) 사찰을 칭찬했다. 2008년 클럽 창립회원으로 8대(2014년) 회장을 역임했다. 무궁화축제 등 행사 때는 바자회에 참여하며, 클럽의 봉사활동에 나갈 때에는 가족들도 동참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 홍천군노인복지관과 홍천군장애인복지관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해외봉사를 위한 기부(년1회)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 지난 추석 때는 홍천군보건소에서 추천받은 독거노인 15명의 거주지를 회원들과 같이 직접 방문해서 이불, 떡,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보살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르신들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찡찡했다고 한다. 그는 “지인의 소개로 클럽 회원으로 동참하게 되었는데 봉사를 하면 할수록 더 삶의 의미가 커지고, 이렇게 봉사할 기회가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정금자 사찰은 민경임(60) 사찰을 칭찬했다. 활발한 성격으로 홍천 태생인데, 2008년 창립회원으로 들어와 7대(2013년)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83세 된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식당(어게인 민가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클럽 행사를

위해 장소 제공도 하고 바자회를 할 때는 식당에서 음식도 같이 만들고 차량 지원도 아끼지 않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때에는 행사를 위해 식당을 아예 닫기도 하는 열성파이다. 그는 “지인의 권유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식당을 운영하느라 바쁘고 몸은 힘들지만 봉사활동을 하고나면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을 느껴 스스로 힐링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회원들이 수시로 기부하는 기부문화가 있어 클럽이 활발하게 지역봉사와 세계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자랑했다.

민경임 사찰은 김영순(60) 회장을 칭찬했다. 2012년 입회한 김 회장은 지난해 7월 11대 회장으로 취임해서 의욕적으로 회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추석 때는 어르신들에게 송편과 삼계탕을

대접하고, 재가노인 방문 시에는 도시락을 전달하고 이불도 기증했는데 어르신이 손을 꼭 잡고 “자식보다 더 좋은 선물을 가져왔다”며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오는 3월 15일에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김 회장의 제안으로 창립기념일 행사 대신 아주 뜻 깊고 보람 있는 봉사를 할 예정인데 바로 다문화가족 5쌍을 위한 합동결혼식이다. 크리스탈웨딩홀에서 합동결혼식을 마친 후 사진 촬영, 점심식사, 이불선물에 이어 숙박도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은 합동결혼식 플래카드를 넣지 않고 신혼부부 별로 사진을 찍어 앨범을 제작해줄 예정이다. 이는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진 클럽의 장점인 섬세함을 살린 배려이다.

사무실에 모인 회원들은 서로를 칭찬하면서 “봉사활동이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국제사회를 위해 회원들이 땀땀 뭉쳐서 더욱 알차게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정규 기자

인생칼럼



석도익

소설가

지구상에 모든 생물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똑같이 나이를 먹는다. 나무는 나이에 따라 나타나고 사 랫은 주름살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나이 드는 모습이나 느낌은 천태만상이다. 어려서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서너 살씩 나이를 울리곤 하던 사람도 정작 장년기에 접어들면 나이를 줄이든가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원하던 원하지 않든 일 년에 한 살씩 더해가는 나이는 어디로 먹는 것일까?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잘 자라

지 않거나, 어울리지 않게 어리광을 부리는 아이에게 “너는 나이를 어디로 먹니?”라고 놀리는데 정말 듣기 싫은 말이다. 또한 어른이 어른같이 행동하지 못할 때 “나이를 어디로 드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본인이 없을 때 흉을 보기도 한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나이를 먹기 시작하는데 어릴 때는 자신

우리라는 것을 알고 상대를 이해한다.

남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장년기에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관용을 배우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일하지만 결국은 다 남을 위하여 일하는 보람을 느끼며 베풀고 포용한다.

등이 가려워도 내가 굽을 수 없는 노년에 나이를 먹는다는 것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무거워진다는 것이다. 마음의 창고 속에 달콤하고 새콤하고 애뜻한 추억의 과일들이 가득 채워진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가벼워진다는 것이다. 욕망의 나무에 잔뜩 열려있던 알찬 열매들을 조용히 내려놓고 한없이 가벼운 깃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한다는 것은 매우 축복받은 일이다. 나무에 싹

이 나고,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듯, 사람도 꽃 피는 젊은 시절에 치열함을 견뎌 후 결실의 달콤함을 맛보는 것이 마땅하다. 나이든 사람의 지혜와 성숙이 깃든 인생은 잘 익은 열매처럼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의 순발력과 패기와, 늙은 사람의 경험과 지혜가 어우러진 세상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 나이를 어디로 먹나

을 알리기 위해 울음을 배우는 것이다.

유년에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겸손을 배우는 것이다. 부모를 알고 형제들과의 서열을 익히고 친구들과 평균에 균형을 잡고 선생님의 가르침에 존경을 느끼게 된다.

청소년기에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배려를 배우는 것이다. 무리에서 질서를 지키고 거리신호 등에서 약속을 익히고 너와 내가

은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을 사랑해야 그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늦게 깨우치게 된다.

특히 노년에 나이는 얼굴로 먹는다. 중년에 접어들면서는 자신의 얼굴에 변화를 책임져야 한다. 자애로움과 지혜와 덕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이나, 욕심과 심술 고집으로 굳어지고 일그러진 모습이 자신의 얼굴에

독자기고



고춘희

홍천군 남면

홍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파독간호사로 독일에서 43년간 거주한 후 고향으로 이주해서, 남면 유치리에 살고 있다.

여기 온지도 2년이 되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찾던 중 홍천실버신문을 알게 되었다.

어떤 곳인가? 하는 호기심에 전화부터 하고 친절한 안내에

곧바로 태학여내길에 위치한 홍천군 노인복지관을 방문했다.

옛날 어린 시절에는 이쪽으로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곳이라 거기가 어

성에 또 한 번 놀랐고, 게다가 셔틀버스 운행까지 해준다니 신세계 같은 곳이었다.

옛날 독일로 떠날 때의 한국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

연금, 실직연금, 양로원, 국민대학 등등)가 잘 되어있고 특히 노동자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노인복지관이라는 기관은 없으며 홍천군노인복지관 같은 곳은 더 더욱 없다. 이런 곳은 한국이 개발한

## 홍천군 노인복지관 이용은 신세계의 발견

딘가 했지만 홍천군노인복지관을 찾았을 때에는 반듯한 건물과 오고 가는 많은 어르신들이 무엇인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적지 않게 놀랐다.

회원가입과 함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가능

었지만 홍천군노인복지관을 들어섰을 때, 새로 지은 건물인지 깨끗하다는 인상이 들었다. 또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라는 여직원의 친절함 안내에 세련되고 전문인답다는 느낌이 들었다. 선진국 못지않은 공공기관이라는 인상도 들었다.

독일도 복지(연금, 기초생활

미래지향적인 기관인 것 같고 선진국의 복지 정치 이념을 뛰어넘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 같았다. 이 부분만큼은 홍천군 노인복지관이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운영되고 있음에 확실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소박한 주장을 곁들이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기를 바란다.